



오민수 | 독일 킬 대학

1. 서론

1) 구약 내에 지혜문학의 위치와 특징

히브리 성경 정경목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토라(תורה/율법서)와 네비임(נביאים/전후선지서), 그리고 케투빔(כתובים/성문서)이다. 지혜서들은 히브리성경 정경목록 중의 케투빔에 속한다. 구약의 지혜문학에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 등의 지혜서들과, 시편 안에 지혜시들,²⁾ 그리고 룻기, 다니엘, 요나, 에스더 등의 ‘지혜이야기들’³⁾이 있다. 이렇게

1) 본 소고의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여 2015년 9월 1일(화)–4일(금)까지 Erturt Bildungshaus St. Ursula에서 개최된 유럽개혁신학회에서 학회 지원으로 작성된 소논문 “이스라엘 역사서술과 지혜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시편 1장; 49장; 9절–10절; 25장; 34장; 73장 등이 지혜시에 해당한다.

3) D. Clines, “The Wisdom Books,” St. Bigger(ed.), *Creating the Old Testament. The Emergence*

지혜문학을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주제와 내용과 양식 면에서 볼 때, ‘토라’와 ‘네비임’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율법서인 ‘토라’와 ‘네비임’ 중 역사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 언약과 구원, 약속과 성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를 주요 주제로 하고 있으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혜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적 관점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주요 주제로 다루며, 지혜자가 체득한 경험을 지식획득의 주요원천으로 한다.⁴⁾ 지혜서들은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삶과 사회의 법칙성을 연구하고 그로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능숙하게 다스려 인생경영을 행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거시적 차원의 역사와 미시적 차원의 지혜는 서술 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한 두 영역으로 간주된다.

2) 문제제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술과 지혜교훈은 각각 상이한 전통 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났다고 할 수 있을까? 또는 두 전통 사이의 상관관계나 접촉점은 없는 것일까?⁵⁾ 만일 삶의 정황이 상이한 두 전통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역사서술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의 ‘왕위계승사’(Thronfolgeggeschichte Davids)는 구약성경 내에

of the Hebrew Bibel (Oxford: Basil Blackwell, 1989), 269–291; J.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0), 23–60; M. Sauer,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2), 137–140.

4) O. Kais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ihre Ergebnisse und Probleme* (München: Gütersloh Verlag, 1975), 333.

5) 구자용, “삼하 11-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구약논단』, 35집(2010년 3월), 119–140은 왕위계승사에 적용되는 지혜문학적인 내용들을 표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술의 양식”⁶⁾으로 간주된다. 이에 필자는 본 소고를 통해서, 왕위계승사에 사용된 서술기법을 분석하고 그로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술과 지혜전통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재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윗의 왕위계승사 안에 나타난 지혜문학적인 어법과 주제를 추적하여 밝히며 시대사적인 의의를 재구성함에 있다.

2. 본론

폰 라드(G. von Rad)는 그의 단행본 “이스라엘의 지혜”⁷⁾에서 이스라엘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른 범주에 속한 것임을 밝힌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형적인 특징은 사실이나 사건의 배후에 있는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일정한 질서와 규칙을 유추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는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들로 이어진다. 시기적으로 구별되는 각각의 단회적인 사건들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역사 안에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자신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 전진해감을 배우게 된다.⁸⁾

이러한 폰 라드의 기본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술의 특

6) G. von Rad, “Der Anfang der Geschichtschreibung im Alten Israel,” G. von Rad (ed.),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B 8;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5), 148–188, 159. 폰 라드는 ‘다윗의 왕위계승사’의 저작 연도를 10세기 중반으로 이해한다. 그의 견해를 이어받은 브뤼거만(W. Brueggemann)은 왕위계승사의 에피소드들의 동시대 작품으로 알려진 창세기 2–11장과 비교하여 연구하였으며, 각각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아담과 이브’의 사건을, ‘압논과 압살롬’은 ‘가인과 아벨’을, ‘압살롬과 다윗’은 ‘노아홍수’를, ‘다윗과 솔로몬’은 ‘노아홍수 이야기’의 사건의 실마리들과 패턴을 보충하고 있음을 논증한다(Brueggemann, W., “David and his Theologian,” CBQ 30(1968), 156–81 참조).

7) G. von Rad, *Weisheit in Israel* (München: Güterloh Verlag, 1970), 373f.

8)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II* (München: Güterloh Verlag, 1965), 115f.

징은 역사이해의 ‘연속성’에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전기선지서의 역사서술과 주전 8세기와 7세기 선지자들,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기록전통을 관통하고 있다. 단회적인 사건의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역사개념은 사물에 놓여진 질서를 파악하고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혜서술과는 대립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와 지혜의 영역을 엄밀히 구분한 폰라드의 관점은 좀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명기적 역사전통과 포로기 전 선지자들의 역사이해를 살펴 볼 때, 이스라엘 역사서술에는 지혜문화적인 특징들이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포착 가능한 규칙으로써의 이스라엘의 역사서술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개입에는 일정한 규칙의 흔적들이 없을까? 히브리 성경을 살펴 볼 때, 야훼의 역사적인 개입에는 분명한 일련의 규칙들이 있다.⁹⁾ 히브리 성경 중 전선지서로 분류되는 사사기 2장 6절-3장 6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은 일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관여함을 밝히고 있다.¹⁰⁾ 사사기 3장 7-11절은 사사기의 시대 전체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소위 “사사기패턴”을 보여주고 있다.¹¹⁾ 그 패턴의 순환 순서는 ‘이스

9) 지혜문학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G. von Rad, “Josephsgeschichte und ältere Chokma,” G. von Rad (ed.),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B;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8), 272-280; H. Specht, *Die Abraham-Lot-Erzählung. Der Beginn der literarischen Abrahamsüberlieferung, ihre Neudeutung durch den Jahwisten und Elohisten* (München, 1983); J. L. Crenshaw, “Method in Determining Wisdom Influence Upon ‘Historical’ Literature”, *JBL* 88 (1969), 129-142를 참조하라.

10) W. Richter, *Die Bearbeitung des Retterbuches in der deuteronomischen Epoche* (BBB 21; Bonn: Peter Hanstein, 1963). 리히터(W. Richter)는 소위 구원자책(Retterbuch)의 전형적인 단락을 사사기 3장 7절-11절로 제시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사(שֹׁפֵט)라는 칭호는 특정한 인물에 한정된 것이며(삿 10:1-5; 12:7-15; 15:20 etc.), 사사기 시대의 구원자들(שֹׁפֵטִים)은 사사의 직무를 승계함으로 통해서 일종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1) J. C. Gertz,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Literatur, Religion und 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Vandenhoeck & Ruprecht, 2009), 294.

라엘의 범죄'(삿 3:7) - '야훼의 진노'(삿 3:8) - '이방인의 손에 넘기심'(삿 3:8) - '이방인 지배의 기간'(삿 3:8) -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삿 3:9) - '구원자를 세우심'(삿 3:9-10) - '물리침'(삿 3:10) - '평화'(삿 3:11) - '사사의 죽음'(삿 3:11)이다(비교. 삿 2:10-19). 또한 일반적으로 신명기적 역사저작이라고 간주되는 열왕기서에서는 '야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라는 사상과 '제의의 예루살렘 집중화' 사상이 그 중심 척도가 되어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왕들의 행적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공식과 같은 문구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또는 '여호와 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삿 2:11-12; 삼상 12:17; 15:19; 왕하 14:24; 17:2 etc.). 또한 야훼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그 백성을 다루시는 일정한 규칙들이 있었다는 것은 열왕기하 17장 7-23절에 요약된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아 시대까지(왕상 12장-왕하 17장)의 '역사적 회고'¹²⁾에도 암시되고 있다.

구약성경의 선지자들도 역사적 사건들 속에 체계화된 질서와 규칙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였다.¹³⁾ 이사야 41장 26절; 43장 12절; 44장 8절은 야훼 하나님의 행하심을 창조라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이방의 신들에 비해 야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일을 미리 알려주셨음에 근거한다.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받고 있다.

12) M. Rösel,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Die kanonischen und apokryphen Schriften*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40, 45.
 13) R. Rendtorff, "Geschichtliches und weisheitliches Denken im Alten Testament," H. Donner, R. Hahnhart/R. Smend(ed.),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Festschrift für Walter Zimmerli zum 70.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346.

이사야 5장 12b절

וְאֵת פְּעֵל יְהוָה לֹא יִבְיטוּ וּמַעֲשֵׂה יָדָיו לֹא רָאוּ

그들은 습관적으로¹⁴⁾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의 행사를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22장 11b절

וְלֹא הִבְטַחְתֶּם אֶל-עֲשִׂיָּהּ וְיִצְרָח מִרְחוֹק לֹא רְאוּתָם

너희는 이를 행하시는 이를 바라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를 경영하신 분을 살펴보지 않았다

아모스 4장 6절 이하의 기록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주전 8세기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자연의 재해와 이변들과 일련의 사건들 속에는 분명하게 읽혀지는 법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야훼가 그 사건들 중에 행하심을 항상 인정하지 않기에 그에 계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한다.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관여하는 야훼 하나님의 개입이란 예기치 못한 일이나, 또는 불시에 닥치는 사건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논리정연한 일관성”(Folgerichtigkeit)과 “내적인 필연성”(innere Notwendigkeit)이 있었다.¹⁶⁾ 이러한 사고는 역사를 바라보는 선지자적 사관의 근본구조와도 일치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상응하는 근거들은 미리 공포되었으며, 그것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한 것

14) 동사구문론적 이해에 따른 번역 원리에 대하여 Minsu Oh, “Überlegungen zu den syntaktischen Funktionen der Fügung *wʿatal* in Koh,” Reinhard G. Lehmann/Johannes F. Diehl(ed.), *Kleine Untersuchungen zu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und seiner Umwelt* 18 (Kamen: Hartmut Spenner Verlag, 2015), 199–222를 참조하라. 구문론적 입장의 번역 적용은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구약논단』 54집(2014년 12월), 281–308을 참조하라.

15) 윗글, 347.

16) 윗글, 348.

이었고, 때로는 충분히 단정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 백성들이나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민족지도자들이 보인 특정한 태도는 내적인 필연성으로 인해 [야훼 하나님에 개입된] 특정한 사건을 초래하고자 만다. 선지자들은 –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를 돌이키도록 하든지 또는 압박한 심판의 불가피함에 근거를 제시하든지 간에 – 끊임없이 야훼께서 행동하시는 기준인 이러한 내적인 필연성을 분명히 밝히고자 애썼다.¹⁷⁾

2) 왕위계승사의 지혜문학적 요소들

(1) 지혜신학적 차원¹⁸⁾

역사서술에 사용된 기법으로써의 내적필연성은 주전 10세기에 집대성된 것¹⁹⁾으로 여겨지는 왕위계승사(삼하 9장-왕상 2장*)에 잘 나타난다.²⁰⁾ 왕위계승사²¹⁾는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

-
- 17) 윗글, 349: "Ein bestimmtes Verhalten der Israeliten oder der verantwortlichen Führer des Volkes hat mit innerer Notwendigkeit ein bestimmtes Handeln zur Folge. Die Propheten sind ständig bemüht, gerade diese innere Notwendigkeit herauszustellen, nach der Jahwe handelt, – sei es, um die Angeredeten noch zur Umkehr zu bewegen, sei es, um die Unausweislichkeit des bevorstehenden Gerichts zu begründen."
- 18) J. N. Carreira, "Formen des Geschichtsdenkens in altorientalischer und alttestamentlicher Geschichtschreibung", *Biblische Notiz*, N.F 31 (1987), 36–57, 50: "Theorie der Geschichte ist vor allem Theologie der Geschichte." – "역사의 이론이란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 나타난 신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위계승사 역시 고근동의 기록된 사료들이나 연보처럼 신학화 된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필자의 견해의 따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술은 고근동의 역사이해와는 달리 지혜문학적 요소로 인하여 예측가능하고 결론이 이해 가능한 역사서술이 되었다.
- 19) H.-J. Hermisson, "Weisheit und Geschichte," H. W. Wolff(ed.),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Gehard von Rad zum 70. Geburtstag*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136.
- 20) J. C. Gertz, 윗글, 297–301. 게어츠는 왕위계승사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개관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왕조가 북왕조의 역사적 유산에 접근할 시기에 생성되었음을 가정한다.
- 21) K. Schmid, *Literatur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8), 71;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12), 296. 디트리히(W. Dietrich)는 다윗의 왕위계승사가 문학적으로 통

를 기술하고 있으며, 그 기록의 목적은 솔로몬의 왕위계승의 합법성이다. 왕위계승사의 저자는 일반역사서술에서 중요시 여겼던 사회적 구조나 국내외의 정치적인 문제는 관심 밖의 사안으로 두고 있다.²²⁾ 또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저자는 왕위승계사의 개별사건들을 야훼의 기적적인 사건개입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 사건들의 인과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을 뿐이다.²³⁾ 이러한 서술방법은 개별사건들이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서 진행됨을 알려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왕위계승사에는 사무엘하 11장 27절과 사무엘하 12장 24절,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7장 11절에 저자의 신학적인 해석문이 등장한다. 폰 라드에 의하면 이 세 구절들은 그 표현의 형식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적인 언급은 극도로 간결할 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과의 연결성도 없으며, 이야기 흐름에 그 어떤 연관성이 없는 난외의 구절들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²⁴⁾ 하지만 이야기 도중 급작스럽게 세 번 등장하는 ‘저자의 신학적인 해석문’은 사건 이해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건을 긴장감 있게 묶어 주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일된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사무엘상 16장-열왕기상 2장 * 까지 전체를 ‘궁정작품집’(Höfisches Erzählwerk)으로 명명한다. 왕위계승사의 주요 내용이 되는 왕위계승은 실제로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상 1장 20절과 27절에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맥켄지(S. L. Mackenzie)와 반 세터스(J. Van Seters) 등의 연구자들은 ‘왕위계승사’를 암논의 비행과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봉기로 마무리되는 ‘궁정실록’(Hofgeschichte, court history)으로 칭하기도 한다(삼하 13-14; 15-19; 20).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에는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삼하 11; 왕상 1:11-31)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는 누가 왕위승계자로 격격할 것인 양 왕위계승사 전체의 이야기와 엮어져 있기에 ‘궁정실록’은 필연적으로 다윗의 간음이야기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 22) H. H. Schmid, "Das alttestamentliche Verständnis von Geschichte in seinem Verhältnis zum gemeinorientalischen Denken", Wort und Dienst 13(1975), 9-21. 이스라엘에서 "질서사상"(Ordnungsdanken)은 주변 문명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사상과는 달리 굳어져서 정형화되어있거나 이념화로 고착화 된 것이 아니었다.
- 23) H.-J. Hermisson, 136ff. 헤르미손(H.-J. Hermisson)은 "내적인 필연성"을 더욱 정밀하게 "내적인 인과성"(innere Kausalität)이라고 표현한다.
- 24) G. von Rad, 윗글(1965), 148-188, 182ff.

첫 번째 왕위계승사에 나타난 ‘저자의 신학적 해석문’이 기록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וַיַּעַבְדֵהוּ אֱשֶׁר־עָשָׂה כִּי־נָשָׂה בָרָא לְהוֹנִי הוֹנָה)”(삼하 11:27)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기록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코멘트는 다윗의 간음사건²⁵⁾을 종결하는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저자의 이 같은 첫 번째 신학적 해석문은 독자로 하여금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다윗 집안의 풍지풍파가 어느 방향에서 설명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 즉, 하나님은 왕의 범 죄를 벌한다는 것이다.²⁶⁾

두 번째 ‘저자의 신학적 해석문’이 나타난 구절이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וַיְהוָה אֹהֲבֵהוּ)”(삼하 12:24)

25) Werner-H. Schmidt, *Evas starke Töchter. Frauen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3), 101-103. 원제 Irene Nowell, *Woman in the Old Testament*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77). 노웰(I. Nowell)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으로서 밧세바는 왕의 전령이 도착했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밧세바의 임신 소식은 왕을 절망시켰고, 그녀의 남편이 전쟁 중에 전사하였을 때도 왕은 밧세바를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사실이다.

26) G. von Rad, *룻글*(1965), 183.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다윗의 금식기도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죽게 된다. 그 후, 신학적인 해석문인 저자의 코멘트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등장한다. 야훼는 밧세바의 태에 생명을 주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인 솔로몬을 사랑한다.²⁷⁾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들려준 코멘트 내용과는 달리,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기의 성장, 성격과 인물과 그 이후에 아이를 둘러싼 일화들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자의 이야기 전개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라”라는 코멘트에 나타난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과 상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이후에 왕위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될 경우, 그것은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해 주는 기술기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저자의 신학적 해석문’이 나타난 구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אֲחִיזֶבֶד אֶת־הַרְקָ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다”(삼하 17:14)

다윗의 왕위계승사에 나타난 세 번째 신학적인 해석문은 압살롬의 난이 일시적으로 성공하여 예루살렘에서 군사회의를 마친 후에 등장한다. 다윗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이끄는 반군 편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그의 계략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 라고 한다(삼하 16:23). 그렇다면 다윗이 이 난국

27) 원문.

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피신 중에 드린 짝막한 기도(Stoßgebet) – “여호와여 원하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 는 의미심장한 것이다(삼하 15:31). 다윗은 감람 산 길을 맨발로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던 산마루턱에서 이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의 장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해 준다(삼하 15:32). 따라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타난 압살롬의 측근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책략에 찬동했다는 기록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에 전환점을 표시해주며, 압살롬 진영에 전개되는 사태의 급진적인 변화는 왕의 기도를 응답한 야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²⁸⁾

지금까지 살펴본 위의 세 구절의 내용은 주요사건의 전개와 동떨어져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특징은 왕위계승사 전체를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해의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진행되는 사건들이 인과적인 맥락에서 사건들이 진행되고 서로 연결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은 야훼 하나님이 사건들의 배후에 있고 그 사건들 안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야훼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마지막까지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야훼의 고유한 활동 영역은 지혜로우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야훼의 활동의 장인 사람의 마음을 지혜문화적인 성격을 지닌다. 유희과 지혜로운 훈계 사이에서 결정내리는 기관은 마음이기예, 잠언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주의하여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²⁹⁾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잠 4:23) 그리고 잠언 17장 3절에서 야훼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

28) G. von Rad, *윗글*(1965), 184.

29)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Gütersloh Verlagshaus, 2010), 92.

으로, 잠언 21장 2절에서 야훼는 사람의 마음의 감찰하시는 분으로 소개된다.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적 사건 전개와 야훼의 활동영역은 상호 분리된 두 영역이 아니라 포개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훼의 행하심은 인과론적 연결망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2) 지혜문학적인 요소들

다윗의 왕위계승사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저작된 역사적 저작이라는 성격보다는 인간의 경험 속에 나타나는 실례를 관통하여 미리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명철과 충명)으로 유도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의미에서 왕위계승사는 교훈적인 지혜전통³¹⁾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혜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잠언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은 깨닫게 하며 [...]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잠 1:2-4)

잠언과 전도서 등 구약의 지혜문학의 주요 주제들은 다윗의 왕위계승사의 에피소드들 곳곳에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 교만과 겸허

요압의 도움으로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압살롬은 자기를 위

30) 박준서, “고대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8집(2000년 6월), 133-149. 박준서는 고대의 지혜 전통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논한다(135). 첫째, 자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 과학적 지혜가 있고, 둘째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실용적인 지혜로 무질서 해보는 인간사회이지만 그 밑에 인간의 법칙을 찾아내려 하였다. 마지막 셋째로, 인간의 지성적 활동과 함께 인간문제를 고민하는 ‘사변적 지혜’이다. 박준서의 분류에 따르면 왕위계승사의 지혜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1) Whybray, R. N., *The Succession Narratives* (SBT 2nd Series 9; London: SCM, 1964), 13-14. 와이브레이(R. N. Whybray)는 왕위계승사의 네러티브가 교훈적 문학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지혜문학과 연관됨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왕위계승사의 가르침을 목적으로 구상 저작되었으며 계승사의 저자는 교사(educator)이거나 교육자(teacher)였다고 말한다.

하여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다섯 명이나 둔다. 우리는 여기에서 압살롬의 야망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삼하 15:1), 압살롬은 왕위 승계의 우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의식하여 스스로를 높임을 알 수 있다.³²⁾ 이러한 압살롬의 태도는 후일에 왕위를 사칭하려다 실패한 왕자, 아도니아와 비교될 수 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명을 준비하니”(왕상 1:5) 왕위를 앞둔 두 사람이 사전행동에서 보여준 기본태도는 교만의 전형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잠언 16장 18절에 근거해 볼 때 이미 시작에서부터 귀결을 알려주고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잠 16:18a)

또한 이들의 모습은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도망하던 모습과 사울의 친족, 시므이의 조롱을 받을 때의 반응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커져가자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때 사독과 레위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께 메어 가져가려 하자, 왕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라고 지시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삼하 15:25-26)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길로 오를 때, 참회하듯 홀로 맨발로 울며 넘어갔다(삼하 15:30).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32) H.-J. Hermisson, 윗글, 139.

모욕할 때, 스루야의 아들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삼하 16:10)

아들을 피해 도피하던 다윗은 겸비한 가운데 있다. 왕위계승자의 저술자는 다윗 왕을 겸손한 자의 실례로 묘사하고 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6:15b)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잠 29:23b)

이러한 다윗의 태도로 볼 때, 그에게 되돌아 올 것은 그의 영예가 복권되는 존귀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압살롬과 다윗의 행동의 특징적인 구별성은 왕위계승사 역사서술에 있어서 지혜문학적인 지평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② 지혜로운 말씨

왕위계승사 전체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연설로 가득하다.³³⁾ 요압의 청탁을 받은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을 압살롬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등장한다(삼하 14). 또 다른 여인은 자신의 지혜로 벤마아가 아벨의 멸망을 피하게 한다(삼하 20:14ff.). 지혜로운 사람,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지혜롭게 전하며 왕의 진노를 잠재운다(삼하 18:28). 시므이 역시 피신에서 귀환하던 왕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왕의 노

33) H.-J. Hermission, *윗글*, 141f.

여움을 달랜다(잠 16:14). 마지막으로 난을 진압하고 회군한 요압은 다윗을 견책하여 어려운 상황을 바로 잡고 있다(삼하 19:16). 지혜로운 말들은 상이한 환경 가운데 주어지지만,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는 합당한 말이라는 점이 그 공통점이라 하겠다(잠 25:11). 구약 이스라엘에서 지혜롭고 훌륭한 말들은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로 간주되며,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대한 재량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잠 12:18; 전 9:13-18).³⁴⁾

③ 훈계의 중요성

다윗의 왕위계승사에서 저자는 왕위를 둘러싼 정국이나 정세 보다는 베일에 숨겨져 있던 왕가의 사적인 영역을 더 비중 있게 다룬다. 큰 아들이었던 암논은 어린 누이인 다말에게 행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승계에 부적격한 인물들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된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의 성폭력에 대한 사후처리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압살롬의 형제살인에 대해 우유부단함을 보인다(비교, 전 10:5; 잠 13:24). 그로 인해 아버지인 다윗 왕은 아들들의 멸망과 왕가의 재난을 더해가는 공동책임자가 되어 버린다. 지혜는 자녀들에 대한 엄격한 훈육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엄한 훈육은 자녀들을 사망에서 건질 뿐 아니라, 자녀들을 보호하며 낳은 부모를 근심으로부터 지켜준다(잠 17:25).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홀에서 구원하리라”(잠

34) 비교, Cha-Yong Ku, *Weisheit in der Thronfolgegeschichte Davids, Eine literarkritische und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der Weisheits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ihrer Ironisierung* (KAANT 9; Kamen: Hartmut Spenner Verlag, 2009), 231. 구자용(Cha-Yong Ku)은 왕위계승사의 고유한 의도는 텍스트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저자는 문예적인 기법차원에서 Ellipse(생략), Repetition(반복), Juxtaposition(병렬)로부터 생성되는 의도적 공란(Leerstelle)을 둔음 밝혔다. 이러한 서술기법의 결과로 통해 왕위승계사 전반에 ‘모호함’(Ambiguität)과 ‘역설’(Ironisierung)이 지배한다고 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또한 왕위계승사의 서술적 맥락 안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윗 왕가에 붙어 닦친 가정사의 재난과 우여곡절은 자신의 사적인 범죄와 떨어질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 이미 잠언의 지혜는 간음은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잠 5:15; 6:27-29).

이와는 별도로 저자는 솔로몬의 왕위계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이 없이 단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삼하 12:14)라는 한마디 해설로 일축한다. 저자는 이로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야훼께서 왕위를 계승할 인물을 정하셨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④ 지혜문학적 인물묘사

삼하 9장-왕상 2장*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혜문학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하 15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잇대이다. 가드 사람이고 나그네였던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고자 했던 다윗과 함께 도망 길에 오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피난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 그는 환란의 시기에 믿음직한 왕의 동료가 되었다. 그는 위급한 때에 혈육보다 친밀하였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잠 17:7)³⁵⁾

35) כָּכֹל-עַתָּה אֱהִיב אֶת-הַיָּדָיִם וְאֶחָד לְעַמִּיתוֹ וְיָגֵדוּ:

[사역] 친구는 항상 사랑하고 그는 위급한 날을 위해 형제로 났도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잠 18:24)³⁶⁾

다윗의 휘하 장수였던 요압은 양면적 유형이 모호한 인물이라고 하겠다. 한편으로 그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해 압살롬을 복권시켰고(삼상 14:1; 잠 20:5), 압살롬의 난을 진압한 후 왕의 마음을 돌이켜 병사들의 충정을 받아들이게 하였고(삼하 19:5), 세바의 반란 때에서 벤마아가 아벨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어 교전 없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였고(삼하 20:16; 잠 10:18; 25:12; 전 10:13ff.), 다윗의 인구조사령에 맞서 충성된 권고(삼하 24:3; 잠 27:9)를 한 일 등등, 사려 깊은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요압은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의 명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압살롬을 무참히 처형시켰고(삼하 18:14-15), 요나단의 난에서 투항하고 세바의 봉기를 진압하는데 일조한 아마사를 야비하게 제거하는(삼하 20:9) 등 냉혹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³⁷⁾

한편 다윗 왕에게 압살롬과의 전쟁의 결과를 전했다던 두 전령은 상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두 전령의 보도는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의 소식에 반응하는가 보다는 보도자인 전령들이 그 전쟁에 대한 인상이 어떠한지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³⁸⁾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당한 말로 결과를 전달한다(삼하 18:24-30). 반면 구스 출신의 전령은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원수를 이긴 승리의 소식이

36) אִישׁ רַעִים לְהִתְרַעֵץ וְיֵשׁ אֶחָב רַבִּק מְאֹד:

[사역] 친구들을 많이 둔 자는 서로 다투지만 형제보다 더 애정깊은 친구도 있다.

37) 요압은 아도니아의 왕위찬탈 모의에 가담하였고(왕하 1:7),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제단 뿔을 잡은 그를 처형한다. 그는 태평한 시대에 무고한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를 흘렸다(왕하 2:5,31-32).

38) Gunn, D. M, *The Story of King David. Genre and Interpretation* (JSOT.S 6; Sheffield: JSOT, 1978), 45.

라고 보고한다(삼하 18:31-33). 이 부분에서 왕위계승사의 저자는 잠언의 주요주제인 사람의 내적이고 심리적 상황³⁹⁾을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다(삼하 18:33).

⑤ 그 밖의 지혜문학적 요소들

그 밖에 왕위계승사 사건서술에는 정교한 어법(삼하 12:12; 14:14; 19:6,19,27)과 은유(삼하 14:14; 17:8,12),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비유사용(삼하 14:4-11) 등 지혜문학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노년의 쇠약함(삼하 19:35 왕상 1:1-4; 비교. 전 12:1-7)⁴⁰⁾과 죽음의 허무함(삼상 12:23; 14:14), 그리고 지혜의 한계(삼하 17:23) 등 지혜문학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3) 왕위계승사와 지혜전통과의 상관관계

위의 필자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사무엘하 9장-열왕기상 2장*의 왕위계승사의 여러 사건들은 지혜문학적인 시각과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술에 있어서 지혜문학적인 소재와 인물들의 성격이 전체 사건을 펼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위계승사의 저자는 전체 이야기를 세 가지 차원으로 중첩시키며 중심 주제인 ‘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왕상 1:27)라는 질문을 풀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차적 차원: 사건으로써의 역사서술

주요인물의 개별적인 품행과 후속 사건들은 전체이야기를 흘러가게

39) S. Schroer/T. Staubli, *Die Körpersymbolik der Bibe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5), 33-44. 슈뢰어와 슈타우블리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사람의 인체와 사람의 내적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특별히 사람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내적인 부분을 포착하는 감찰자로 하나님을 상징한다.

40) H. W. Wolff, *율글*, 178ff. 볼프는 젊음과 나이듦이라는 테마를 ‘생물학적 인간론’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한다. 다윗과 그의 아들, 그리고 기타 궁정의 인물들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사건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들이다.

이차적 차원: 시각화된 지혜로써의 역사서술

기술된 사건의 전후관계는 지혜교훈의 인과관계로 엮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지혜적인 교훈들로 구성된 ‘내적 필연성’에 의하여 엮여져가며, 바로 이로 인하여 전체 사건들은 이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의 이치들’(Ordnungen)로 통하여 사건과 그 이후에 전개될 사건들, 그리고 사건 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삼차적 차원: 지혜신학으로써의 역사서술

저자의 ‘신학적 해석문들’(삼하 11:27; 12:24; 17:14)은 발생한 사건들의 상관관계의 심오한 차원 – 야훼의 활동의 장으로서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어리석어질 수도 있는 사람의 결정기관 마음과 야훼의 섭리 – 을 열어 보여준다. 역사의 진행이란 중국적으로는 지혜신학적인 주제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기뻐하지 않으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 구현되는 야훼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는 ‘이차적인 차원: 시각화된 지혜로써 역사서술’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 배후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궁극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⁴¹⁾ 따라서 세계 내에 내재하고 있는 ‘지혜의 이치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격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의도하심 속에 그 의미를 되찾게 된다.⁴²⁾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되기

41) 비교. J.-H. Hermisson, *윗글*, 146-147.

42) 각주 17번 참조.

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사건 발생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야훼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 내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여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다.⁴³⁾

왕위계승사 전체 구성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고 하지 만, 사건구성의 뼈대를 이루는 일차적인 차원인 인물들의 품행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건들은 역시도 지혜적인 차원이 투영되는 것을 ‘④ 지혜문학적인 인물묘사’로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혜적인 차 원은 물론이거니와 세 번째 지혜신학적 차원 역시도 지혜문학의 전통 안 에 포함되어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과 의도를 넘어서는 야훼 하나님의 인도 역시 이스라엘의 지혜가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이다.⁴⁴⁾ 아래에 소개 될 잠언의 두 구절은 야훼의 경륜이 사람의 길을 지도한다고 교훈하 고 있으며, 인간의 지혜의 의의와 한계를 알려주고 있다.

잠언 16장 9절

כִּי אָדָם יַחְשָׁב כִּרְצוֹן יְיָהוָה יִכֵּן צִעְדוֹ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야훼는 그의 발걸음을 정하신다

잠언 16장 9절은 야훼와 사람을 구별되는 행위 주체로서 세우지만, 사 람의 마음의 계획은 야훼의 경륜과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야 훼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짜아드(צֵעֵד/발걸음)를 야킨(יָכִין/정하다,

43) 임효명, “이중인과율(dual-causality)과 본문의 공백, 그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51집(2014년 3월), 150-168. 필자의 견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임효명은 ‘이중인과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44) W. Zimmerli, “Ort und Grenze der Weisheit im Rahmen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W. Zimmerli (ed.), Gottes Offenbarung. Gesammelte Aufsätze (ThB 19;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3), 300-315. 침멀리(W. Zimmerli)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근동에서 지혜란 “질서신 양”(Ordnungsglauben)을 그 근본 바탕으로 함으로 지혜는 세속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원리는 아니었 다(303).

굳건히 하다)하신다. 그래서 야훼의 주권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잠언 16장 9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문장의 형태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의 조화적인 관계를 ‘주어+동사+목적어’를 병행하여 비례대칭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잠언 19장 21절

רבות מחשבות בלב־איש נעצת יהוה היא תקום

여러 가지 계획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있지만 야훼의 경륜, 그것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야훼의 경륜은 ‘양보적인 관계’에 있다. 한 사람의 마음에는 수 많은 마하샤보트(משחבות/사유들, 계획들)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자신의 아짜(עצה/모사)를 성취되도록 하신다. 잠언 19절 21장 상반절과 하반절은 사람의 ‘마하샤보트’와 야훼의 ‘아짜’를 각각 복수와 단수로 대립시키고 있다. 본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모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들 중에 ‘선별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잠언 19장 21절은 문장의 형태론적 차원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반절은 전치사 구에 의하여 한정된 명사문이며, 후반절은 동사문을 사용하고 있다. 후반절을 살펴보면, 야훼의 ‘아짜’는 여성형 지시대명사 히(היא/그것)로 한번 더 강조된 다음에 후 동사 ‘완전히 서리라’가 오고 있다.

잠언 16장 9절과 19장 21절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영역으로 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나 경륜이 사람의 경영을 순응적 관계와 양보적인 관계로 정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위계승사는 ‘① 교만과 겸허’, ‘② 지혜로운 말씨’, ‘③ 훈계의 중요성’, ‘④ 지혜적인 인물묘사’, ‘⑤ 그 밖의 지혜적인

요소들'을 선보이며 사람의 지혜의 의의와 그 한계를 생생히 보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단락 2), (1)에서 논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다윗의 왕위계승사 서술은 세 가지 차원 - '사건의 전개로써의 역사서술', '시각화된 지혜로써의 역사서술', '지혜신학적 차원에서의 역사' - 을 나란히 공존시키며 중심 주제('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인가?')를 펼치기 위하여 세밀한 곳까지 지혜문학적 기법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⁴⁵⁾

3. 결론

포괄적으로 볼 때, 지혜전통의 사고는 개별사람을 관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역사적인 사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역사서술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민족의 한 일원이면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지혜교훈 속의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개별 사람들이며 지혜는 이들의 공동체적 생활을 위해 교훈하고 있다. 또한 지혜는 개인의 삶을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지혜문학적인 맥락에서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지혜의 일람표에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을 위해 교훈들이 나열되지만, 반면 역사서술의 연표에는 민족의 미래와 하나님의 임박한 개입이 공고되어 있다. 지혜와 역사는 서로 다른 삶

45)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7집(2015년 9월), 99-124. 안근조는 전도서 연구에서 일단의 지혜자 집단에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여 왔었음과 이들이 지혜전통의 편집과 전승을 하였다는 팍스의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한다. 고전적인 왕위계승사 연구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왕위계승사는 주전 10세기 작품이다. 왕위계승사가 사건전개 뿐 아니라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지혜문학적 기법이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주전 3세기 훨씬 이전 시기인 왕정 이전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지혜전통은 보존하는 전문적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음으로 보아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의 정황과 다루는 대상으로 인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혜와 역사는 각기 다른 문학적인 형태와 문제제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적인 작업이라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⁴⁶⁾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왕위계승사를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지혜적인 사고가 이야기 전개를 다층적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서술하는 사관 자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혜와 역사는 명백히 구별되는 두 가지 양식의 문학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미시적 맥락의 지혜사고와 거시적 맥락의 역사서술은 각각 다른 지적작업이기는 하나, 두 영역 모두가 동일한 정신적 유산인 지혜유산을 이어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역사적 사건을 진행시키는 논리를 지혜에서 찾는 ‘통합적인 사유’(integrative thinking)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목적인 달성하기 위한 냉철한 수단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⁴⁷⁾ 통합적 사유의 체계로 통해 엮여져가는 지혜로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보존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술의 독특성은 당시 다른 기록문화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보여 준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궁정일지와 연보, 왕조의 계보와 나라의 연대기 등 역사적인 문서들을 전수하고 보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6) G. von Rad, *윳글*(1970), 366-375.

47) 구자용, “삼하 11-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138. 구자용은 이스라엘의 지혜는 일을 성사시키는 이성적인 지혜임을 인정하지만 그 바탕에 ‘에토스’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동구는 그의 소논문 “잠언의 하나님 이해와 성스러움”, 『구약논단』 43집(2012년 3월), 12-33에서 잠언 지니는 사회통합적인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잠언의 지혜신학자들은 사회-윤리규범 속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의를 발견하였음을 역설한다.

고 고대 이스라엘과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민족적인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⁴⁸⁾ 고대 그리스 역시 영예스러운 군사적인 업적이나 개인의 영웅적 행적을 찬양하거나 영웅의 고난을 주제로 역사를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역사인 사건들 속에 있는 연속성을 찾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들을 관통하는 거시적 맥락의 사관 또한 형성하지 못하였다.⁴⁹⁾ 그러므로 고대 오리엔트와 그리스 문명과 비교해 볼 때, ‘통합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지혜문화적인 차원의 이스라엘의 역사이해는 ‘역사기술의 개혁’이었으며, 시대사적인 측면에서 ‘역사의식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구자용, “삼하 11-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구약논단』 35집(2010년 3월), 119-140.

박준서, “고대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8집(2000년 6월), 133-149.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7집(2015년 9월), 99-124.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구약논단』 54집(2014년 12월), 281-308.

임효명, “이중인과율(dual-causality)과 본문의 공백, 그 신학적 의미”, 『구

48) G. von Rad, *유허*(1965), 149.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 기술을 처음 시도한 인물은 Berossus이다. 하지만 그의 노력 역시 고대그리스의 정신문화의 영향 하에서 이룩될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

49) E. Mühlberg, “Die Geschichte in der Kirchengeschichte. Beobachtung zu Eusebs Kirchengeschichte und ihren Folgen,” K-M. Kodalle/A. M. Steinmeier(ed.), *Subjektiver Geist. Reflexion und Erfahrung im Glauben*. Festschrift für Traugott Koch (Würzburg: Könighaus & Neumann, 2002), 189-205, 199-200.

- 약논단」 51집(2014년 3월), 150-168.
- 한동구, “잠언의 하나님 이해와 성스러움”, 『구약논단』 43집(2012년 3월), 12-33.
- Brueggemann, W., “David and his Theologian”, *CBQ* 30(1968), 156-81.
- Carreira, Jose Nunes, “Formen des Geschichtsdenkens in altorientalischer und alttestamentlicher Geschichtsschreibung”, *Biblische Notiz*. N.F 31(1987), 36-37.
- Clines, D., “The Wisdom Books,” St. Bigger(ed.), *Creating the Old Testament. The Emergence of the Hebrew Bibel* (Oxford: Basil Blackwell, 1989), 269-291.
- Crenshaw, J. L, “Method in Determining Wisdom Influence Upon 'Historical' Literature”, *JBL* 88 (1969), 129-142.
- _____.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0).
- Gertz, Jan Christian,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Literatur, Religion und 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Vandenhoeck & Ruprecht, 2009).
- Gunn, D. M, *The Story of King David. Genre and Interpretation* (JSOT.S 6; Sheffield: JSOT, 1978).
- Hermisson, Hans-Jürgen, “Weisheit und Geschichte,” Wolff, Hans Walther(ed.),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Gebard von Rad zum 70. Geburtstag*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136-145.
- Kaiser, Otto,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ihre Ergebnisse und Probleme* (München: Gütersloh Verlag, 1975).
- Ku, Cha-Yong. *Weisheit in der Thronfolgeschichte Davids. Eine literarkritische und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der*

Weisheits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ihrer Ironisierung (KAANT 9; Kamen: Hartmut Spenner Verlag, 2009).

Mühlenberg, Ekkehard, “Die Geschichte in der Kirchengeschichte. Beobachtung zu Eusebs Kirchengeschichte und ihren Folgen,” Klaus-Michael Kodalle/Anne Steinmeier(ed.), *Subjektiver Geist. Reflexion und Erfahrung im Glauben*. Festschrift für Traugott Koch (Würzburg: Könighaus & Neumann, 2002), 189-205.

Minsu Oh, “Überlegungen zu den syntaktischen Funktionen der Fügung *w'qatal* in Koh,” Reinhard G. Lehmann/Johannes F. Diehl(ed.), *Kleine Untersuchungen zu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und seiner Umwelt* 19 (Kamen: Hartmut Spenner Verlag, 2015), 199-222.

Schmidt, Werner H., *Evas starke Töchter. Frauen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3). 원제 Nowell, Irene, *Woman in the Old Testament*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77).

Rendtorff, Rolf, “Geschichtliches und weisheitliches Denken im Alten Testament,” Herbert Donner/Robert Hahnhart/Rudolf Smend(ed.),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Festschrift für Walter Zimmerli zum 70.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344-353.

Richter, Wolfgang, *Die Bearbeitung des >Retterbuches< in der deuteronomischen Epoche* (BBB 21; Bonn: Peter Hanstein, 1963).

Rösel, Martin,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Die kanonischen und apokryphen Schrift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 Sauer, Markus,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2).
- Schmid, Hans Heinrich, “Das alttestamentliche Verständnis von Geschichte in seinem Verhältnis zum gemeinorientalischen Denken”, *Wort und Dienst* 13 (1975), 9-21.
- Schmid, Konrad, *Literatur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8).
- Schroer, Siliva/Staubli, Thomas, *Die Körpersymbolik der Bibe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5).
- Specht, Herbert, *Die Abraham-Lot-Erzählung. Der Beginn der literarischen Abrahamsüberlieferung, ihre Neudeutung durch den Jahwisten und Elohisten* (München, 1983).
- von Rad, Gehard, “Der Anfang der Geschichtschreibung im Alten Israel,” Gehard von Rad(ed.)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B 8;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5), 148-188.
- _____, “Josephsgeschichte und ältere Chokma,” Gehard von Rad (ed.),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B 8;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5), 272-280.
- _____,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II* (München: Güterloh Verlag, 1965).
- _____, *Weisheit in Israel* (München: Güterloh Verlag, 1970).
- Wolff, Hans Walter,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Gütersloh Verlaghaus, 2010).
- Whybray, R. N., *The Succession Narrative I* (SBT 2nd Series 9; London: SCM, 1964).
- Zenger, Erich,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12).

W. Zimmerli, “Ort und Grenze der Weisheit im Rahmen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W. Zimmerli(ed.), *Gottes Offenbarung. Gesammelte Aufsätze* (ThB 19;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3), 300-315.

검색어

케투빔

이스라엘의 역사

왕위계승사

통합적 사유

지혜

Historical Writing based on the Wisdom:
David's succession of throne (2 Samuel 9 - 2
Kings 2^{*})

Minsu Oh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Th.D

The history of Israel deals with historical events as its subject matter, and the intervention and revelation of God are the centers of the writings of the history and its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Israelite wisdom is based on daily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and searches for the inherent causal relationships, and it takes diverse characters and their actions as its main them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historical writings of Israel and their wisdom tradition and to find out its historical significance. For this task, I selected the story of David's succession to the throne as my research subject,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oldest historical writings.

www.kci.go.kr

I observed that the story of David's succession to the throne employs the typical themes of the wisdom literature, which are arrogance versus humility, wise words, the importance of discipline, and the portrayal of wise characters. Based on my observations, I noticed that the story of David's succession to the throne is narrated from a perspective of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i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s and the events surrounding them, the second, the inherent inevitability of the events, and the third, love of Yahweh. I contend that the teachings of the wisdom tradition are the underlying theme, knitted into the story of David's succession to the throne, and thus, there exists a ver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historical writings of Israel and their wisdom tradition. It is made clear, therefore, that integrative thinking exists in the historical writings of Israel.

Keywords

ketubim

historical writings of Israel

the story of David's succession of the throne

integrative thinking,

wisdom

- 투고일: 2015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6일

www.kci.go.kr